

‘세계 속 대학’ 동강대, 국제협력 인프라 ‘탄탄’

베트남 응에 안 무역관광대 총장단 초청 방문 교환 학생·학점 교류·공동 교육과정 등 논의

동강대학교가 해외 대학들과 독특한 국제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한국어학당을 통한 외국인 학생들의 유학도 적극 지원하며 ‘세계 속 대학’으로 발돋움한다.

동강대학교는 25일 “지난 19-24일 베트남 응에 안 무역관광대학교(Nghe An Trading and Tourism College) 응우옌 쩌엥 지안 총장을 비롯한 8명의 방문단을 맞이했다”고 밝혔다.

이번 응에 안 무역관광대 방문은 동강대가 지난해 12월 베트남 현지에서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데 이어 초청 행사다. 방문단은 첫 날인 19일 동강대 캠퍼스 투어를 통해 다양한 교육 인프라를 경험했다.

동강대학교 역사관, 도서관, 원격교육지원센터, 글로벌 존 등 학교 시설과 부사관 학군단(R

NTC: Reserve Non-commissioned Officer's Training Corps), 외식조리제빵과, K-뷰티아트과, AI미래자동차와 자율주행, 건축과 등 각학과 실습실 및 기숙사를 둘러봤다.

또 향후 두 대학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 교환 학생, 학점 교류, 공동 교육과정 운영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응에 안 무역관광대는 1996년 개교해 응에 안 성의 관광, 호텔 경영, 상업 경제학, 서비스 비즈니스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그동안 동강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베트남 현지 대학들과 활발한 국제교류를 펼쳐왔다. 이번 응에 안 무역관광대에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베트남 응에 안 성에 위치한 한베산업기술대학교(Korea-Vietnam Industrial Technology



동강대학교가 베트남 응에 안 무역관광대학교 응우옌 쩌엥 지안 총장 등을 초청함에 따라 지난 19-24일 8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이 학교를 찾아 캠퍼스 투어 및 기숙사를 둘러보고 향후 교환 학생, 학점 교류, 공동 교육과정 운영 등에 대해 논의했다. <동강대제공>

College) 호반담 총장이 동강대를 방문해 유학 관련 구체적인 논의를 한 바 있다.

한베산업기술대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베트남에 기술인력 양성 지원을 위해 1998년에 설립한 기술 교육기관으로, 재학생은 3천

여명이다.

여기에 동강대는 올해부터 한국어학당을 운영하며 외국인 학생들의 유학 도우미로 나섰다. 동강대 한국어학당 불 학기(3-6월)에는 베트남 학생 22명이 입학했다. /김다이기자

개성과 배우 김형범 조선대 겸임교수 위촉



다수의 드라마, 영화 등에 출연하며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온 배우 김형범이 조선대 강단에 선다.

조선대학교는 “최근 배우 김형범씨를 글로벌인문대학 K-컬처공인·기획학과 겸임교수로 위촉했다”고 25일 밝혔다.

신학협동과 학생들의 현장감 있는 교육을 위해 조선대 겸임교수로 활동하게 된 김형범씨는 ▲프로젝트 워크숍(3시간) ▲현장 체험 프로그램(3시간) ▲공연제작과 세계연극사(3시간) 등 3개 교과목을 담당하며 4학년 졸업공인 지도와 세계연극사 수업을 진행한다.

배우 김형범은 지난 2000년 SBS 9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 드라마 ‘발리에서 생긴 일’, ‘편의전쟁’, ‘기황후’, ‘옥중화’, 영화 ‘박수건달’, ‘올학교 이티’, ‘공필두’ 등에 출연하며 탄탄하고 개성 넘치는 연기로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다.

/김다이기자



장흥경찰, 자율방범연합대 위촉·간담회

장흥경찰서는 “최근 지역 치안을 위해 자율방범대를 위촉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간담회는 3층 전관마루에서 장흥경찰서 범외계방대응과장, 지역관서장, 자율방범연합대장, 읍면 자율방범대장 등 총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과 함께 우리동네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진행됐으며 위촉장 수여, 장흥경찰서 추진사항, 자율방범대법 교육, 자율방범대 활동 사항, 건의·논의 사항 청취 등이 이뤄졌다.

신행희 경찰서장은 “범죄 예방을 위해 자율방범대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경찰과 협력해 공동체 치안 활성화를 위해 힘써달라”며 “경찰도 자율방범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흥=노홍록기자



도농기원-가나종묘 ‘종자산업 활성화’ 협약

전남도농업기술원은 25일 “담양군 소재 농업회사법인 가나종묘(대표 안예원)와 전남 원예작물 신품종 개발 및 종자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전남 원예작물 재배 면적은 4만2천271ha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한 품종 개발과 종자 생산·유통 등 종자산업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전남지역에 맞는 원예작물 신품종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사업을 발굴하고 육성 품종의 보급·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인력·시설·장비를 활용해 종자 순도 검정과 품종을 판별할 수 있는 마커 개발 등 분자 육종 기술 개발에도 힘을 모을 방침이다. /김재정기자

인사

광주상공회의소 <승진>

◇임원 ▲전무이사 김경호 ▲광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처장 이후형

◇2급 ▲회원사업본부장 김은희 ▲경영지원본부장 지은진

<전보>

◇1급 ▲기획조사본부장 강조범

◇2급 ▲협력사업본부장 전은영



오비맥주 광주공장, ‘세계 물의 날’ 하천 정화 활동

오비맥주 광주공장은 “세계 물의 날(3월22일)”을 맞아 최근 공장 인근 황룡강 일대 장륙습지에서 수질오염 개선을 위한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다”고 25일 밝혔다.

광주공장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물 절약 캠페인’도 실시했다.

세숫물 담아 쓰기, 변기 물 절약하기 등 물을 아끼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모하고 소정의 상금을 증정해 일상생활 속에서 친환경 실천을 장려했다.

이 외에도 에너지·연료 절감을 주제로 한 공

모전, 환경교육 및 물의 날 동영상 시청, 생산 현장 환경 개선활동 등 다양한 친환경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양우천 오비맥주 광주공장장은 “이번 ‘세계 물의 날’ 캠페인을 통해 임직원들이 물의 소중함과 수자원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지역사회 환경 개선에도 앞장서는 계기가 됐다”며 “주류업계 지속가능경영 선도기업으로서 앞으로도 맥주의 핵심 원료인 ‘물’ 보호에 책임감을 갖고 친환경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은성기자



전남산림자원원, 단풍나무 등 300여그루 식재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25일 연구소 뒷산에서 도민이 더 많이 찾는 명품 숲 조성을 위해 대표적 경관 수목인 단풍나무 등 300여그루를 심었다.

나주청사 이전 50년을 맞아 ‘숲, 그 이상의 가치를 심다’라는 주제로 지금까지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 시험포지에서 증식한 단풍 50그루와 붉가시 250여그루를 심었다. 행사에는 김호진 전남도위원과 전 직원 50여명이 참여했다.

올해는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가 192년 광주 임지에서 개원한 이래 1974년 나주 산포면 현 위

치로 이전한 지 50년이 되는 해다. 과거에는 양묘를 중심으로 소득자원 연구를 위해 사용했던 시험포지가 이제는 전남도의 대표 숲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메타세쿼이아길과 향나무 가로수길은 아름다운 포토존으로 매년 30만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오득실 소장은 “선배 공무원이 조성한 시험포지가 50년이 지나 도민을 위한 명품 숲이 됐듯 이번엔 심은 나무도 앞으로 연구소를 대표하는 중요 경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동부소방, 무등산국립공원서 ‘산불 예방 캠페인’

광주 동부소방서는 25일 “지난 25일 무등산국립공원 일원에서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동부소방서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 등 80여명이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등산객에게 산불 예방 리플릿 전달,

등산로 환경정화 등 다양한 활동들이 이뤄졌다. 송민영 동부소방서장은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1년 중 가장 높은 시기”라며 “등산객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산불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은정기자

목포해경, 행락철 수상레저 안전관리 강화

목포해양경찰서는 25일 “봄철 바다낚시 및 수상레저활동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5월6일까지 수상레저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상레저 사고는 총 104건으로 이중 정비불량이 58건(56%), 운항부주의가 27건(26%) 등 대부분 사고 원인은 안전의식 부족이다.

이와 관련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수상레저 취약해역 집중 순찰, 수상레저 활동자 대상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유관 기관, 수리업체 등으로 구성된 수상레저기구 무상점검단을 구성해 장비 점검을 병행한다.



해경은 수상레저 안전 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 달 6일부터 5월6일까지 40일간 무면허 조종, 주취운항, 안전장비 미착용 등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해 나간다. /목포=정혜선기자

신안소방, 의용소방대 여성 연합회장 이·취임식

신안소방서는 “최근 제3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과 제7대 신안군 의용소방대 여성 연합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958년 설립된 의용소방대는 2021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과 희생정신을 알리기 위해 매년 3월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지정, 매년 기념식을 갖고 있다.

남녀 총 31개대 612명이 활동하고 있는 신안소방서 의용소방대는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 수행, 보조하며 화재 예방 캠페인·내고향 봉사활동 전개 등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

기념식에서는 제7대 신안군 의용소방대 여성 연합회장 이·취임식도 진행됐다. 지난 4년간 임



기를 지낸 최설임 전 여성연합회장의 퇴임을 축하하고, 앞으로 2년간 김상순 여성 연합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류도형 신안소방서장은 “최설임 전 여성 연합회장에 감사하며 김상순 신임 여성 연합회장도 소방서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안=양훈기자

담양군, 식목일 기념 고비산서 나무심기 행사

담양군은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최근 금성면 의주리 고비산 일원에서 담양사랑 나무심기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과 화합의 장 마련,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제1회 고비산 산빛꽃 축제의 성공 기원, 지역의 숨은 관광 명소를 관계 기관과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고비산 일원에서 진행됐다.

행사에는 이병노 군수를 비롯해 최용만 담양군의회 의장, 박종원·이규현 도의원, 박준영 부의장, 정철원 군의원 및 이기복 NH농협은행 담양군지부장, 송진현 담양군산림조합장, 장현필 담양군입업후계자협의회장, 입업인, 초등학생, 마을 주민, 공무원 등 250여명이 참가해 뱃나무



총 200그루를 심었다. 또한 참가자들은 오는 4월5-6일 열리는 제1회 고비산 산빛꽃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기 위한 돌래길 걷기 행사도 함께했다. /담양=정승규기자